

기술·가정과 교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

박미정* · 임윤진**1) · 권유진** · 이광재***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일산동고등학교 교사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of Participation in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and High School Credit System

Park, Mi Jeong* · Lim, Yunjin**1) · Kwon, Yoojin** · Lee, Kwangja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KICE)

***Teacher, Il-san East High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condary 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of the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and high school credit system. For this purpose, the questionnaire data of 345 secondary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achers nationwide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F*-test with SPSS 24.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achers recognized that current schools lacked the time to organize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61.1%) and the number of teachers (53%). Most of them have participated (62.0%) and were very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4.47, 89.9%).

Second,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achers were awar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more than the average (3.34), and more negative (52.8%) than positive (37.7%). As a positive influence, students recognized career choices (3.88) and deepened professional content in their major fields (3.81).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impact was the decrease in choice due to non-entry subjects (3.90) and the difficulty in moving teachers to school (3.57).

Third, in order to stably respond to the introduc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ach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ordinating career elective courses (4.51),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for elective courses (4.46), separating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4.45), and providing training on evaluation methods and applications (4.44).

This study would be useful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and data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at the national level based on high school credit system.

Key words: 고교학점제(high school credit system), 교사 인식(teacher's perception), 기술·가정(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선택과목(elective course), 학교교육과정 편성(organization of school curriculum)

1) 교신저자: Lim, Yunjin, 8 Gyohak-ro, Deoksan-myeon, Jincheon-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82-43-931-0216, Fax: +82-43-931-0884, E-mail: techlim@kice.re.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교육과정 편성은 단위학교의 연간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설계도로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근본이며 뼈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학교교육과정 편성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개정되거나 고교학점제 등의 학사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은 결과적으로 교원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기준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Kwon & Kim, 2012), 교원 수급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학생 수요에 따른 추가 개설 과목 규모, 현 교원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 학생 수 감소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원의 증원 규모를 산출(Ministry of Education [MOE], 2017)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에 교과 교육차원에서는 이 둘의 관련성을 민감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술·가정과 교원 수급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목 편성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학교교육과정 편성에서 기술·가정과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은 교육과정 실천 행위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술·가정과 교사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하는가는 장기적으로 학습자들의 기술·가정과에 대한 교과경험 및 교원 양성·임용·연수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수준의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정책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는 2017년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제안되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배경으로 입시와 수능에 종속된 고교 교육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줄세우기식 평가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찾았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성장과 진로 개척을 돕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제로서 작용하여 안정적인 고교체

제 개편과 고교 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 것이다.

MOE(2017)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학생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최대한 학교 내에서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고, 공동 교육과정, 지역 사회 연계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등의 개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의 폭이 큰 만큼 MOE(2017)는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교육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교사는 교육 변화의 열쇠이며, 교사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 없이 효과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Borg, 2006; Hargreaves 1994, as cited Shin, 2019, p. 4). 그러나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나 고교학점제에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가 정책추진 방향 및 도입쟁점 분석에 치중되어 있고, 교육현장의 실행주체인 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Shin, 2019).

기술·가정 교과는 초등학교에는 ‘실과’, 중학교의 ‘기술·가정’, 고등학교의 일반선택과목인 ‘기술·가정’과 진로선택과목인 ‘농업생명과학, 공학일반, 창의경영, 해양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재산일반’이 편제되어 운영되고 있다(MOE, 2015). 고등학교의 기술·가정교과 편성과 관련된 연구로 Lim(2018)과 Park(2017)의 연구가 있다.

Lim(2018)은 학교알리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가정과 선택 교과목에 대하여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의 표시과목별 고등학교 교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학년도의 전국 일반계고 숫자와 대비하여 기술·가정 과목은 2016학년도는 95.5%(1476/1545), 2017학년도는 87.7%(1365/1556), 2018학년도는 80.1%(1246/1556) 정도로 기술·가정의 편성 운영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학년에 기술·가정 교과를 운영하고 2학년이나 3학년에서 기술과의 진로선택과목이 편성되거나 과목 개설 및 수업시수가 증가된 사례를 발굴하여 그 과정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로 제시한 두 학교 모두 기술과 교사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과교육과정 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도전에서부터 교육과정 편성이 시작되었음을 밝

했다.

Park(2017)은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고등학교 가정과 선택 교육과정 편성 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제 1차 교육과정시기에 단일 과목으로 편성되었던 ‘영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15개로 분화된 것에 비해, 제 1차 교육과정기 이전부터 가사, 재봉, 수예, 실업의 과목으로 편성되었던 ‘가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의 일부분과 ‘가정과학’으로 오히려 과목수가 축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정 계열 선택 과목 수의 축소는 학생들에게는 가정교과에 대한 선택 기회를 감소시키고, 대학교육에서는 가정 계열 관련 학과의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Park(2017)은 가정계열 교과 분화를 통한 고등학교 가정과 선택과목의 다양화·전문화를 제안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두 연구(Lim, 2018; Park, 2017) 모두 기술, 가정 전공 교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현행 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선택 교육과정 편성·운영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사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참여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기술·가정 교과가 차기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학점제에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기술·가정과 교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참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기술·가정과 교사의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셋째, 기술·가정 선택과목의 적합성과 고교학점제 대응 방향에 대한 기술·가정과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II. 관련 문헌 고찰

1.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편성

초·중등교육법(2018)의 제23조제1항에서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학교에서는 설립주체를 불문하고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2018) 제23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커다란 밑그림으로서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수준의 지역수준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고 단위학교는 이를 토대로 해당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개발하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Kwon & Kim, 2012).

가.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의 변화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과정의 지방 분권화가 도입되기 시작한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실업·가정’ 교과는 과정별 필수 과목으로 ‘기술,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정보산업, 진로·직업’이 편제되어 있었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기술·가정’ 교과로 통합·변경되었다. 선택형 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편제 및 시간(단위) 배당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 선택과목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에서 발견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차와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되며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부턴 편성되었다. 2009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전체 3년이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필수로 이수되었던 기술·가정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으

Table 1. Changes in high 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organization and time dividend standards

| 구분 | 7차 [제1997-15호] | 2007 개정 [제2007-79호] | 2009 개정 [제2011-361호] | 2015 개정 [제2015-74호] |
|--------------|---|--|--|---|
| 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2년) ◆ 보통 교과에 기술·가정이 속하며 선택 과목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2년) ◆ 보통 교과에 기술·가정이 속하며 선택과목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교과는 기본과목, 일반과목, 심화과목으로 구분함 ◆ 교과 영역은 ‘생활·교양’에 속함 ◆ 교과(군)은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에 속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영역은 ‘생활·교양’에 속함 ◆ 교과(군)은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에 속함 ◆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으로 구분함 |
| 시간(단위) 배당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위는 50분 수업 기준 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위는 50분 수업 기준 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위는 50분 기준으로 17회 이수하는 수업량 ◆ 필수 이수 단위 수는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로서 16단위임 ◆ 교과 영역별로 균형 있게 편성·운영함 ◆ 기본 단위 수 5단위이며 과목별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위는 50분 기준으로 17회 이수하는 수업량 ◆ 필수 이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로서 ‘생활교양(16)’은 12단위 이상 이수 권장 ◆ 선택과목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일반선택은 2단위 범위 내에서, 진로선택은 3단위 내에서 증감 편성·운영 가능 |
| 국민공통/기본/공통 | 기술·가정(6) | 기술·가정(6) | - | - |
| 선택 과목 | 일반 정보와 컴퓨터(4) 심화 농업 과학, 공업 기술, 기업 경영, 해양 과학, 가정 과학 (5과목 각 6단위) |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보 (6과목 각 6단위) | 기술·가정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경영 일반, 해양 과학, 정보 (6과목) |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6과목) |

Source: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http://ncic.kice.re.kr>) Reprocessing Data.

로 편성되었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군)은 ‘생활·교양’ 교과 영역에 포함되었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실과(기술·가정)가 과학 교과와 같은 교과(군)으로 묶여 있는 것에 비해 고등학교는 ‘생활·교양’ 영역에 편제되어 위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또한 기술·가정 교과(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이 없어 같은 교과 영역에 포함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선택과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과 심화선택 과목으로 분리되어 있고,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일반과 심화선택의 구분이 없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기본과목을 제외하고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과목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과목을 제외하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개정 때마다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술·가정과의 경우 ‘기술·가정’ 과목은 국민공통기본

교과와 일반 선택과목으로, 심화(진로) 선택과목으로 ‘가정 과학’을 비롯한 5~6개 과목이 명칭만 조금씩 바뀌면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선택과목은 대학전공과의 연계성을 근거로 선택 과목이 구성되어야 하나 ‘지식재산일반’의 선택과목만 추가되고, 나머지 과목은 6차 교육과정 이전과 크게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는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편제 및 편성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 학교교육과정 편성 관련 선행 연구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편성과 운영이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2010년 이후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법적 성격을 고찰한 연구(Kwon & Kim, 2012),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실태와 인식, 사례를 조사한 연구(Han,

2012; Kim, 2010; Lee, 2014), 교과별로 특정 과목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사례, 인식 등을 조사한 연구(Lim, 2018; Park, 2017; Shin & Kwak, 2019; Yu, 2018)가 있다.

Kim(2010)은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사 273명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초·중등교사 80% 이상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기구가 조직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교사의 의견 반영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등의 경우 ‘많이 반영되는 편’ 39.4%, ‘조금 반영됨’에 38%로 응답하여 초등학교에 비해 반영률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의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해서는 평교사에 비해 부장교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경력별로는 15년 이하의 교사보다 16년 이상인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중등의 경우, 응답자의 59.2%가 바람직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의 주체가 일반교사라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현 재직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의 주체는 57.7%가 교무부장이라고 응답하였다.

Han(2012)은 과학, 영어, 예술·체육 교과중점 고등학교의 2011학년도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안을 수집·분석하여 교과중점 고등학교의 내실화 방안으로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Lee(2014)는 전문가 29명을 대상으로 한 3차례에 걸친 델파이 연구와 심층 면담을 통해 질 높은 학교교육과정은 ‘학교 구성원의 합의와 참여를 토대로 교육과정이 편성’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Shin과 Kwak(2019)은 2018년도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운영되고 있는 통합과학 과목의 편성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모집단으로 비례층화표집으로 309학교를 선정한 후, 해당 학교의 통합과학 담당 교사 258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결과, 학교별 통합과학 편성 단위수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8단위를 운영하는 학교가 51.2%, 6단위를 운영하는 학교가 44.8%임을 확인하였다.

Yu(2018)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일반 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의 인식과 학교별 선택 과목의 편성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육을 필수 이수단위인 10단위

부터 12단위로 편성·운영하고 있었고, 1학년에서는 ‘체육’, 2학년에는 ‘운동과 건강’, 3학년에는 ‘스포츠 생활’ 과목을 주로 개설하고 있었다.

한편 기술·가정 교과에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주제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Lim(2017)은 일반 고등학교의 기술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그 과정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경기도의 2개 고등학교의 사례를 종합하면 교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수업 내실화 및 이를 통한 학생과 교육과정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 타 교과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전 학년에 걸쳐 기술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됨으로써 이전 교육과정에 비하여 과목 수와 수업 시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기술·가정 교과의 편성 및 운영 실태 조사와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선택과목의 교육과정 편성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Park(2017)은 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 대부분의 교과는 선택과목 수가 증가된 것에 비해 가정 계열은 선택과목 수가 오히려 축소된 것을 확인하고, 현행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과정 실천행위로서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고교학점제

가. 고교학점제의 개념

현행 교육과정 이수제도를 살펴보면, 초중학교는 학년제이고, 고등학교는 단위제이며, 대학교는 학점제이다. 학년제(graded school system)는 학교의 수업 연한을 1년 단위로 구분·편성하면서 입학·진급·졸업이 결정되는 제도로서 초·중·고 교육법(2018) 제26조(학년제)에서는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

업은 학년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의 단위제(unit system)는 주당 1시간씩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수업량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MOE, 2015)에서는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안내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는 3년간 204단위(교과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를 출석 시간의 2/3만 채우면 이수하는 양적인 시스템이다. 반면 학점제(credit system)는 대학에서 개별 과목의 이수 학점과 등록 학기를 누적하여 졸업을 인정하는 학사관리 제도이다(Hong, 2018).

Sung(2019)은 사실상 학점제나 단위제나 모두 학점(credits)으로 환원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한국에서 그것이 사용되고 이해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학점제’란 용어는 학점은행제와 같이 유연한 학점 교류 체제에 대해 이해시키기 쉽고, ‘대학에서처럼’ 최소한의 필수 위에서 스스로 자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학습권이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 개념이라고 해석하였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Gu와 Namgung(2011)은 고교 교육과정이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의 성취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 이수단위(출석기준)만이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환기시키면서 학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고교 단위제를 대학 수준의 학점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학점제를 “교과별 이수 성취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각 과목별 학점이 누적되어 설정해 놓은 최소 졸업학점에 도달하는 학생에게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the credit[unit] system)”(Gu & Namgung, p. 3)로 정의하였다. Lee 외(2017)는 고교학점제 도입의 궁극적인 취지를 학습자의 수준·적성·진로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규정하고, 학점제란 “교과(과목)의 성취 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이수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교과(과목)별 학점이 누적되어 최소 졸업학점에 도달하는 학생에게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p. 28)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MOE(2017)는 “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p. 3)라고 기본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후 Kim, Lee, Cho, Lee와 Lim(2018)은 고교학점제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것으로, 과목별 이수기준을 충족할 때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안)”(p. 23)으로 정의하였다. Hong(2018)은 고교학점제를 “개별 과목에 부여된 학점의 성공적 이수와 등록학기를 누적하여 학년을 진급하고 졸업에 이르는 학사관리제도”(p. 708)라고 정의하면서, 중요 요건을 과목이수요건, 학년진급요건, 졸업요건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고교학점제는 ‘과목 선택·이수, 학점 누적, 진급 및 졸업’이라는 핵심어를 포함하면서 학자들에 따라 그 강조점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이 담보되어야 하는 정책이기에 다양한 과목이 교육과정 편성 시 개설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수강 신청, 학생 참여형 수업, 수업과 연계한 평가, 과목 이수/미이수 요건과 학점 취득, 진급과 졸업 기준과 실행 등을 고려해야 하는 실천 과정으로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요소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나. 고교학점제의 추진

2017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2022년 전면 시행할 것을 예고(MOE, 2017)하였다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부분 도입과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25년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Table 2>와 같은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MOE, 2018a).

3단계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는 2022년 까지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학생의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2019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은 3년 동안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후,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단계에는 현행 교육과정 총론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학점제로의 전환,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과목 개설 활성화 등의 고교학점제의 제도를 부

Table 2. Road map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 구분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 1차 연구·선도학교 ※ 매년 말 성과분석 실시 | | | 2차 연구·선도학교 ※ 매년 말 성과분석 실시 | | | | |
| | 정책연구 ※ 교육과정·평가, 교원·시설 등 | | 중합 추진계획 마련 | |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 | 학점제 본격 시행 | |
| 교육과정 | 2015 부분 개정 |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고시 | | 일부 수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 | | |
| | 전면 개정 | | 개정 발의 및 기초연구 | | 총론 확정, 교과교육 과정 개발 | | 교육과정 개정 고시 | |

Source: 2022 School admission system reorganization plan and high school education innovation direction.

분 도입한다. 3단계인 2025년 이후에는 선택 과목 재구조화 등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5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를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다. 고교학점제 관련 선행 연구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가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안)’ 발표를 하자,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KFTA], 2017)에서는 전국 초·중·고 교원 2,077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긍정적인 답변이 42.6%인 것에 비해 부정적인 답변이 47.4%로 약간 더 많았다. 고교학점제에 긍정적인 입장은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맞춤형 교육 강화(65.2%), 학생에게 교과선택권 부여(17.5%), 학생들의 학습 및 입시부담 경감(12.5%)을 이유로 들었고,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의 이유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우려(43.2%)와 교사 및 학교시설 부족(34.8%),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학교 간 격차 발생 심화(13.6%)였다. 이에 따라 교충은 교사 및 시설 등 교육여건의 개선, 평가체제 및 대입제도 개선 병행, 고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Lee 외(2017)의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고등학교 교사 총 1,608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 결과, 고교학점제 도입·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들은 ‘필요하다’ 37.4%, ‘보통’ 35.6%, ‘필요하지 않다’ 26.4%의 의견을 보였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KFTA(2017)의 응답과 동일하게 ‘학생의 적성, 진로, 수준에 맞는 과목의 선택권 확대 가능’을 필요성의 이유로 들었다(77.4%).

Kim 외(2018)의 연구에서는 고교 교원, 장학사, 연구사,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 총 10,55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7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결과, 교육부가 정의한 학점제 구성 요소(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과목 이수 기준 설정, 졸업 요건 규정) 중 고교학점제는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Shin(2019)의 연구 결과, 교직 경력이 10년 이하의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정책 이해도가 낮아도 수용 태도가 높아 긍정적이고 변화에 포용적인 양상을 보였고, 교직 경력이 높은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으나 수용 태도가 낮은 편이었고,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Choi(2019)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649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5점 만점에 3.86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이해를 보였지만 고교학점제의 정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78.7%가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에서는 경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 교육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는 1~5년 경력의 초임교사(M=3.08)가 6~38년 경력의 중진 교사들(M=2.91)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t=2.048, p=.041$).

Hong(2018)은 고교학점제를 구현하기 위한 후속연구로, 고교 교원들의 학점제 인식 조사연구, 고교에 개설할만한 계열과 과정의 종류와 진로별·과정별 핵심교과목 연구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가정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Figure 1>과 같은 연구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조사 도구의 개발

본 연구의 목적인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와 고교학점제

에 대한 기술·가정과 교사의 인식 조사를 위하여 연구진은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절차, 기술·가정과 교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참여, 고교학점제에 관한 교육부 정책 문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계획서 등의 문서를 참조하여 조사 내용을 선정하였다. 조사 내용에 대하여 기술교육전문가 1인, 가정교육전문가 1인, 고등학교 교사 1인으로부터 조사내용과 응답형식에 대하여 내용 검토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 조사도구를 만들고, 온라인 설문조사 구축 사이트(Surveymonkey)를 활용하여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구동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진이 가상응답 방식으로 설문응답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3. 연구의 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중등 기술·가정과 교사이다. 학교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에서 제공하는 2018년도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자료에는 중학교의 경우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로 통합되어 제공되고, 고등학교의 경우 ‘생활교양/기술·가정/제2외국어’로 통합되어 자료가 제공되어 정확한 기술·가정과 교사의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8년도 상반기 전국의 중학교의 수(3,254개교)와 고등학교의 수(2,402개교)를 합한 5,656개교를 기준으로 최소 1명의 교사가 근무한다고 볼 때 연구 대상의 숫자는 5,000명을 넘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표본의 수는 모집단 크기와 신뢰수준(95%) 및 오차범위(5%)를 고려하여 산출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모집단이 5,000명 이상일 때 400명 이상의 표본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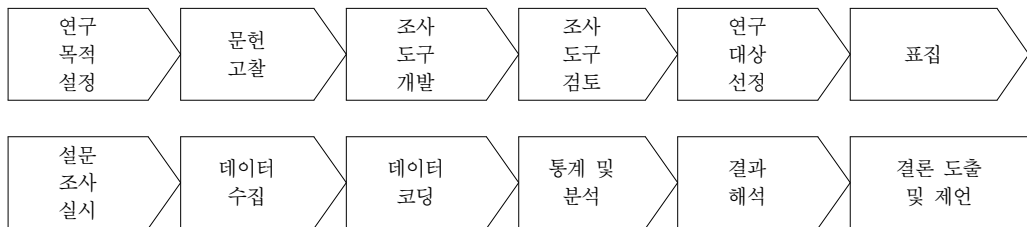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procedure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집 방법은 비확률적 표집 방법인 유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 도구의 내용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과 기술교사 및 가정교사의 성별 구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중등학교의 경우 1교사가 2개 학년을 평균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확률적 표집 방법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주는 방법인 유의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대상을 기술과 교사와 가정과 교사로 이원화하여 설문 조사를 요청하였다. 기술과는 전국기술교사 모임과 한국기술교육학회의 도움을 받아 관련 조사 목적과 설문조사 사이트 정보를 안내하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가정과 역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위한 안내 메일 발송의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자료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한달 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결과 응답자 수는 총 436명으로 표본 추출 기준인 400명 이상을 충족하였다.

5. 자료 분석 대상

수집된 자료(436명)중 불성실한 응답 및 결측(81명)을 제외한 345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Table 3>과 같이 응답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재직학교의 비율은 중학교(71.3%)가 고등학교(28.8%)보다 높았다. 표시과목의 비율은 가정(56.2%)이 가장 높았고, 성별 비율은 여교사(75.4%)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직경력에 따른 비율은 5년 미만 교사(33.6%)가 높게 나타났고, 학급당 학생 수 비율은 20명이상 30명 미만(63.5%)이 가장 높았다. 실습실의 보유현황은 가정실(65.%), 기술실(52.2%), 기술·가정실(26.1%)로 나타났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345)

| 구분 | | 빈도 | 비율 | 구분 | | 빈도 | 비율 |
|----------|---------|-----|------|---------------------|---------|------|------|
| 학교 소재 | 대도시 | 136 | 39.4 | 재직 학교 | 중학교 | 246 | 71.3 |
| | 중소도시 | 144 | 41.7 | | 고등학교 | 99 | 28.8 |
| | 읍면이하 | 65 | 18.8 | | 중1 | 52 | 15.1 |
| 성별 | 남 | 85 | 24.6 | 지도 학년 | 중2 | 69 | 20.0 |
| | 여 | 260 | 75.4 | | 중3 | 125 | 36.2 |
| 표시 과목 | 기술 | 131 | 38.0 | | 고1 | 93 | 27.0 |
| | 가정 | 194 | 56.2 | | 고2 | 4 | 1.2 |
| | 기술가정 | 9 | 2.6 | | 고3 | 2 | 0.6 |
| | 기타 | 11 | 3.2 | | 10명 미만 | 14 | 4.1 |
| 교직 경력 | 5년 미만 | 116 | 33.6 | 학급당 학생수 | 10명~20명 | 16 | 4.6 |
| | 5년~10년 | 55 | 15.9 | | 20명~30명 | 219 | 63.5 |
| | 10년~15년 | 57 | 16.5 | | 30명~40명 | 96 | 27.8 |
| | 15년~20년 | 44 | 12.8 | 실습실 유형 (복수응답) | 기술실 | 180 | 52.2 |
| | 20년~25년 | 21 | 6.1 | | 가정실 | 226 | 65.5 |
| | 25년~30년 | 38 | 11.0 | | 기술·가정실 | 90 | 26.1 |
| 30년 이상 | 14 | 4.1 | 컴퓨터실 | | 133 | 38.6 | |

6.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Table 4>와 같다.
 조사 도구는 크게 응답자 특성, 현재 학교 교육과정 편성,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영향,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의 적합성, 고교학점제 대비 방안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조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1$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7.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통계분석 패키지인 SPSS 24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면 <Table 5>와 같다.

IV. 연구 결과

1. 기술·가정과 교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참여에 대한 인식

현재 학교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육과정 편성 시수와 교사 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반 수 이상의 교사들이 기술·가정 시수가 부족하고(61.1%), 기술·가정 담당 교사 수가 부족하다고(53.0%)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지역 규모, 표시과목, 재직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현재 학교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편성 시수와 교사 수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참여하는 비율(62.0%)이 참여하지 않는 비율(38.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술·가정과 교사가 학교교육과정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이유는 ‘교과 교사로서 당연히 참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

Table 4. Organization of survey tools

| 순서 | 구분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 1 | 응답자 특성 | 8 | 1~8 |
| 2 | 현재 학교교육과정 편성 | 2 | 9~10 |
| 3 |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 | 3 | 11~13 |
| 4 | 고교학점제 도입 | 1 | 18 |
| 5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영향 (영향 인식,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 25 | 19~43 |
| 6 |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의 적합성 | 8 | 44~51 |
| 7 | 고교학점제 대비 방안 | 13 | 52~64 |

Table 5. Analysis method by analysis content

| 순서 | 분석 내용 | 분석 방법 | |
|----|-------------------------------------|---------------------------|------------|
| 1 |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에 대한 기술·가정과 교사의 인식 | 빈도, 비율 분석 | |
| 2 | 기술·가정 선택과목의 적합성과 고교학점제 대응 방향에 대한 인식 | 기술 통계(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 |
| 3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 | 성별, 표시과목, 재직 학교급 | 집단 간 차이 분석 |
| | | 지역 규모 | t검정, F검정 |

라는 응답(62.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과정 편성 관련 위원’이어서 참여하거나(23.4%), ‘자발적 참여 의지’에 따라 참여(11.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가정과 교사가 교육과정 편성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72.6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 미반영’의 경험으로 불참한다는 응답(21.74%)도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개념 중의 하나인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위원(23.4%)으로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 담당교사로서 당연히

(62.1%), 꼭(11.2%) 참여해야 하는 교육과정 실천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Table 8>과 같이 평균값(4.47/5.0)과 참여하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8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별, 지역 규모, 표시과목, 재직 학교급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 의지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Perception of the number of hours of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and the number of teachers i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N=345)

| 현재 기술·가정 교육과정 편성 시수와 교사 수 | | 빈도 | 비율(%) | 평균 | 표준편차 |
|---------------------------|------------|------------|-------------|------|------|
| 기술·가정 교육과정 편성 시수 | 매우 부족함 | 66 | 19.1 | 2.34 | 0.97 |
| | 부족함 | 145 | 42.0 | | |
| | 보통 | 88 | 25.5 | | |
| | 충분함 | 41 | 11.9 | | |
| 기술·가정과 교사 수 | 매우 충분함 | 5 | 1.4 | 2.49 | 1.00 |
| | 매우 부족함 | 58 | 16.8 | | |
| | 부족함 | 125 | 36.2 | | |
| | 보통 | 105 | 30.4 | | |
| | 충분함 | 50 | 14.5 | | |
| | 매우 충분함 | 7 | 2.0 | | |

Table 7. Current status and reasons for participa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N=345)

|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 | | 빈도 | 비율(%) |
|-------------------------|--|------------|--------------|
|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 여부 (n=345) | 참여함 | 214 | 62.0 |
| | 참여 하지 않음 | 131 | 38.0 |
|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 이유 (n=214) | 학교교육과정 편성과정에서 교과 담당교사는 당연히 참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 133 | 62.1 |
| |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위원이기 때문에 | 50 | 23.4 |
| | 편성과정에 꼭 참여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 24 | 11.2 |
| | 기타 | 7 | 3.3 |
| 학교교육과정 편성 불참 이유 (n=131) | 학교교육과정 편성과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 1 | 0.62 |
| | 교육과정 편성과정이 공개되어있으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 7 | 4.97 |
| | 교육과정 편성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 28 | 21.74 |
| | 교육과정 편성에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 95 | 72.67 |

Table 8.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future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N=345)

| 향후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참여할 의향 | 빈도 | 비율(%) | 평균 | 표준편차 |
|----------------------|------------|-------------|------|------|
| 전혀 참여하지 않음 | 1 | 0.3 | 4.47 | 0.73 |
| 참여하지 않음 | 4 | 1.2 | | |
| 보통 | 30 | 8.7 | | |
| 참여함 | 106 | 30.7 | | |
| 반드시 참여함 | 204 | 59.1 | | |

Table 9. Recognition of the introduc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N=345)

|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대한 인식 | 빈도 | 비율(%) | 평균 | 표준편차 |
|------------------|------------|-------------|------|------|
| 전혀 모름 | 11 | 3.2 | 3.34 | 0.94 |
| 모름 | 44 | 12.8 | | |
| 보통 | 142 | 41.2 | | |
| 알고 있음 | 113 | 32.8 | | |
| 매우 잘 알고 있음 | 35 | 10.1 | | |

Table 10.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by school level

| 학교급에 따른 고교학점제 도입 인식 차이 | 빈도 | 평균 | 표준편차 | t |
|------------------------|------------|-----|------|------|
| 고교학점제 도입 인식 | 중학교 재직 교사 | 246 | 3.22 | 0.92 |
| | 고등학교 재직 교사 | 99 | 3.65 | 0.92 |
| | 계 | 345 | 3.34 | 0.94 |

***p<0.001

2. 기술·가정과 교사의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영향 인식

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인식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학점제 도입이 기술·가정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가정과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9>와 같이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인식이 보통 수준(41.2%)이 가장 많고, 알고 있다는 응답이 32.8%,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는 응답과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의 합이 42.9%로 보통 수준보다 높지만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이 보통보다 약간 높아(3.34/5.0)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표시과목,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급에 따라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참고).

이에 응답자 중 중학교 재직 교사가 많은 본 연구의 특성상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영향력이 큰 고교학점제를 기술·가정과 관련 학회에서 기술·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겠다.

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영향 인식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기술·가정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는 <Table 11>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2.8%)이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기술·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KFTA(2017)

Table 11. Recognition of the impact of introducing high school credit system (N=345)

| 고교학점제가 기술·가정과에 미치는 영향 | 빈도 | 비율(%) | 평균 | 표준편차 |
|-----------------------|------------|-------------|------|------|
| 매우 부정적 | 32 | 9.3 | 2.81 | 1.15 |
| 부정적 | 150 | 43.5 | | |
| 보통 | 33 | 9.6 | | |
| 긍정적 | 111 | 32.2 | | |
| 매우 긍정적 | 19 | 5.5 | | |

Table 12. Predicting the positive impact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with the introduc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N=345)

| 고교학점제가 기술·가정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희망 전공 분야의 전문 내용 심화 | 1 | 5 | 3.81 | 1.02 |
| 학생진로 선택에 도움 | 1 | 5 | 3.88 | 1.01 |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 요구 해소 | 1 | 5 | 3.72 | 1.06 |
| 교과목 인지도 개선 | 1 | 5 | 3.59 | 1.19 |
| 1학년 외 2, 3학년 교과목 편성 | 1 | 5 | 3.62 | 1.11 |
| 학생의 교과 수업태도 개선 | 1 | 5 | 3.44 | 1.23 |
| 교사의 학습공동체 결성 및 활동 증가 | 1 | 5 | 3.51 | 1.17 |
| 실습 관련 환경 개선 | 1 | 5 | 3.47 | 1.18 |
| 교과 관련 예산 증가 | 1 | 5 | 3.54 | 1.11 |
| 대학 수시전형에 활용 | 1 | 5 | 3.36 | 1.15 |
| 학부모 인식 개선 | 1 | 5 | 3.31 | 1.22 |
| 고등학교 배치희망 증가 | 1 | 5 | 3.52 | 1.10 |

에서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42.6%, 부정적인 답변이 47.7%가 나온 것과 비교해볼 때, 기술·가정과 교사가 고교학점제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37.7%)도 있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인식 결과에 대해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지역 규모, 표시과목, 재직 학교급에 따른 인식은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도입이 기술·가정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Table 12>와 같이 ‘학생진로 선택에 도움’(3.88/5.00)과 ‘희망 전공 분야의 전문 내용 심화’(3.81)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교육적 요구 해소’(3.72), ‘1학년 외 2, 3학년의 교과목 편성’(3.62), ‘교과목 인지도 개선’(3.59)

의 측면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기술·가정과의 다양한 전문 분야의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됨은 물론 교과목의 인지도 개선과 고등학교교육과정 편성에서 2, 3학년에도 과목 개설이 가능해진다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가정과 전공 교사는 ‘희망 전공 분야의 전문 내용 심화’에 대하여 다른 전공의 교사에 비해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 영향 인식에 대하여 성별, 지역 규모, 표시과목, 재직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성별, 지역 규모, 재직 학교급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able 13>과 같이 교사의 표시과목에 따라 가정과 전공 교사가 기술, 기술·가정 등 타 표시과목 교사에 비하여 ‘희망 전공 전문 내용 심화’에

Table 13.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positive impacts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n adop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by teacher qualification subjects

| 희망 전공 분야의 전문 내용 심화에 대한 표시 과목의 차이 | | 빈도 | 평균 | 표준편차 | t | p |
|----------------------------------|-----------------|-----|------|------|-------|--------|
| 희망 전공 분야의 전문 내용 심화 | 가정 | 194 | 3.65 | 1.09 | -2.98 | .003** |
| | 가정 외(기술, 기술·가정) | 151 | 3.98 | 0.90 | | |
| | 계 | 345 | 3.81 | 1.02 | | |

** p<0.01

Table 14. Negative impacts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on high school credit system (N=345)

| 고교학점제가 기술·가정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입시 과목이 아니므로 선택이 감소 | 1 | 5 | 3.90 | 1.00 |
| 선택과목으로 교사의 전보가 어려워짐 | 1 | 5 | 3.57 | 1.06 |
| 교양차원으로 1학년에만 편성 | 1 | 5 | 3.03 | 1.06 |
| 학교 내 교사 수 감소 | 1 | 5 | 2.73 | 1.09 |
| 정보과목의 선택 증가 | 1 | 5 | 3.75 | 1.06 |
| 학부모 인식 개선이 안 됨 | 1 | 5 | 3.63 | 1.11 |
| 교사 전공 변경이 증가 | 1 | 5 | 3.58 | 1.10 |
| 고등학교 배치 희망 감소 | 1 | 5 | 3.44 | 1.04 |
| 실습 관련 환경이 축소 통합될 것임 | 1 | 5 | 3.22 | 1.09 |
| 교과 관련 예산의 감소 | 1 | 5 | 3.19 | 1.05 |
| 교수학습과 평가의 부담 증가 | 1 | 5 | 3.23 | 1.11 |
| 교사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증가 | 1 | 5 | 3.23 | 1.14 |

대하여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택과목이 ‘가정과학’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술·가정교과는 기계·로봇·자동차·항공 우주 등의 공학계열과 식품영양·의복과 패션·주거·소비자·아동 및 가족 등의 생활과학 분야의 다양한 심화 전공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기술·가정 교과와 진로선택과목을 보다 다양하게 개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고교학점제 도입이 기술·가정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비입시 과목으로 인한 선택 감소’(3.90/5.0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과목 선택 증가’(3.75/5.00), ‘교사 전보의 어려움’(3.57/5.00), ‘교사 전공 변경 증가’(3.58/5.00) 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4>의 결과에 대하여 성별, 지역 규모, 표시과목,

재직 학교급에 따른 인식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 인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대학입시제도에 맞추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서 기술·가정과를 교양 과목으로 1학년에 편성한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학생의 진로 선택에 따라 과목이 개설될 경우에 교사들의 학교 이동(전보)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므로 생활 및 근무 여건의 어려움이 증가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다양한 선택과목을 담당함으로써 요구되는 교수학습과 평가의 부담과 이와 관련된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5. Applicability of high school credit program to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electives (N=345)

|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선택과목으로서의 적합성 | 최솟값 | 최댓값 | 평균 | 표준편차 |
|-------------------------|-----|-----|------|------|
| 기술·가정 | 1 | 5 | 4.25 | 0.73 |
| 가정과학 | 1 | 5 | 3.69 | 0.86 |
| 공학일반 | 1 | 5 | 3.42 | 0.90 |
| 지식재산일반 | 1 | 5 | 3.37 | 1.01 |
| 정보 | 1 | 5 | 3.34 | 0.87 |
| 창의경영 | 1 | 5 | 3.16 | 0.81 |
| 농업생명과학 | 1 | 5 | 3.01 | 0.89 |
| 해양문화와 기술 | 1 | 5 | 2.89 | 0.84 |

3. 고등학교 기술·가정 선택과목의 적합성과 고교학점제 대응 방향 인식

가. 기술·가정 선택과목에 대한 적합성

기술·가정과 교사들에게 2015 개정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군의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선택과목으로서의 적합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Table 15>와 같이 현재의 교과목 구조에서 가장 적합성이 높은 과목은 ‘기술·가정(4.25/5.00)’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과학(3.69)’, ‘공학일반(3.42)’, ‘지식재산일반(3.3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의경영(3.16)’, ‘농업생명과학(3.01)’, ‘해양문화와 기술(2.89)’은 ‘정보(3.34)’ 과목의 적합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과목은 ‘기술·가정’의 비율이 높고 ‘가정과학’이 일부 운영되기 때문이며, 그 외 과목은 거의 선택이 되지 않고 있기에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15>의 결과에 대하여 성별, 지역 규모, 표시과목, 재직 학교급에 따른 인식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지역 규모, 표시과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나. 기술·가정과 고교학점제 대응 방향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Table 16>과 같이 ‘기술·가정 교과 진로선택과목의 명칭, 개수, 영역 등의 조정(4.51/5.00)’, ‘선택

과목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4.46)’, ‘기술과 가정의 분리(4.45)’, ‘선택과목 지도를 위한 실습실 확보(4.4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연수(4.44)’, ‘선택과목 지도 자격의 명확한 규정(4.43)’,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전문성 함양 연수 제공(4.39)’을 통한 고교학점제 대응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실습에 필요한 예산 증액(3.98)’과 ‘교과 인식 개선 홍보(3.65)’는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응답자의 특성(성별, 지역 규모, 표시과목, 재직 학교급)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교사의 성별, 지역 규모, 표시과목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재직 학교급에 따라서는 <Table 17>과 같이 일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진로선택과목 조정’과 ‘선택과목 지도를 위한 실습실 확보’에 대해서는 중학교 재직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과 인식 개선 홍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재직 교사가 중학교 재직 교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응하여 기술·가정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할 사항은 첫째,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도록 진로선택 과목을 조정하는 것이고, 둘째, 선택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교사 전문성 신장을 돕는 것, 셋째, 기술과 가정영역을 분리하여 전공별 심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넷째, 다양한 선택과목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환경(실습실 등) 조성과 교수학습 및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마련하는 것이다.

Table 16.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response to high school credit system

| 기술·가정과의 고교학점제 대응 방향 | 최솟값 | 최댓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진로선택과목 조정(명칭, 개수, 영역) | 1 | 5 | 4.51 | 0.65 |
| 선택과목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 1 | 5 | 4.46 | 0.65 |
| 기술과 가정의 분리 | 1 | 5 | 4.45 | 0.66 |
| 선택과목 지도를 위한 실습실 확보 | 1 | 5 | 4.44 | 0.66 |
|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연수 제공 | 1 | 5 | 4.44 | 0.65 |
| 선택과목의 지도 자격의 명확한 규정 | 1 | 5 | 4.43 | 0.68 |
| 교실수업개선 위한 전문성 함양연수 제공 | 1 | 5 | 4.39 | 0.7 |
| 생활교양(군)에서탐구(군)으로 이동 | 1 | 5 | 4.37 | 0.71 |
| 교육과정 필수 시수 확보 | 1 | 5 | 4.26 | 0.93 |
| 전공과목 내용 심화 연수 제공 | 1 | 5 | 4.03 | 0.94 |
| 실습에 필요한 예산 증액 | 1 | 5 | 3.98 | 0.82 |
| 교과 인식 개선 홍보 | 1 | 5 | 3.65 | 0.99 |

Table 17. Differences in perception on the direction of coping with high school credit system

| 기술·가정과의 고교학점제 대응 방향 | 사례 수 | 평균 | 표준편차 | t | |
|----------------------------|---------|-----|------|------|--------|
| 진로선택 과목 조정 (명칭, 개수, 영역) | 고등학교 재직 | 99 | 3.95 | 1.01 | -2.20* |
| | 중학교 재직 | 246 | 4.18 | 0.83 | |
| | 계 | 345 | 4.12 | 0.89 | |
| 선택과목 지도 위한 실습실 확보 | 고등학교 재직 | 99 | 4.31 | 0.68 | -2.36* |
| | 중학교 재직 | 246 | 4.50 | 0.65 | |
| | 계 | 345 | 4.44 | 0.66 | |
| 교과 인식 개선 홍보 | 고등학교 재직 | 99 | 3.84 | 0.97 | 2.28* |
| | 중학교 재직 | 246 | 3.57 | 0.99 | |
| | 계 | 345 | 3.65 | 0.99 | |

* p<0.05

V.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참여에 대한 인식 및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중등 기술·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비확률적 표집 방법인 유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436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하였고, 최종적으로 345명의 자료를 SPSS 24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 F검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현재 학교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편성 시수가 부족하고(61.1%), 교사 수도 부족(53%)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응답자의 62.0%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었고, 향후 학교교육과정 편성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매우 높았다(4.47, 89.9%).

둘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었고(3.34),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가 중학교 교사에 비해 잘 알고 있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하여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긍정적인 인식(37.7%)보다 부정적인 인식(52.8%)이 많았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3.88)과 전공 분야의 전문내용 심화(3.81)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비입시 과목으로 인한 선택 감소(3.90)와 이에 따른 교사 전보의 어려움(3.75) 등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술·가정 선택과목 구조에서 고교학점제 적용 적합성이 높은 과목으로 ‘기술·가정(4.25)’, ‘가정과학(3.69)’, ‘공학일반(3.42)’, ‘지식재산일반(3.37)’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창의경영(3.16)’, ‘농업생명과학(3.01)’, ‘해양문화와 기술(2.89)’은 ‘정보(3.34)’ 과목의 적합성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로선택과목의 조정(4.51), 선택과목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4.46), 기술과 가정의 분리(4.45),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연수 제공(4.44)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 재직 교사에 비해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교과 인식 개선 홍보’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보다 질 높은 기술·가정과 운영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편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기술, 가정과의 병합으로 교과 시수 및 교원 수급 문제가 촉발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편성과 관련되어 있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정에서 함께 논의되고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행히 본 연구의 결과 기술·가정과 교사들이 향후 교육과정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과 관련된 학교 관리자, 동료교원 및 학생, 학부모의 기술·가정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전공 분야의 전문내용 심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과 전공 교사는 ‘희망 전공 분야의 전문 내용 심화’에 대하여 다른 전공의 교사에 비해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선택과목이 ‘가정과학’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기술·가정교과는 기계·로봇·자동차·항공 우주 등의 공학계열과 식품영양·의복과 패션·주거·소비자와 가정관리·아동 및 가족 등의 생활과학 분야의 다양한 심화 전공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고교학점제가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영향력 보다 전공교육에 미칠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연구 결과(Choi, 2019)를 고려해본다면,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가정 계열의 진로선택과목을 보다 다양하게 개설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전공 분야의 전문내용 심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비입시 과목으로 인한 기술·가정 선택 감소를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목적에 맞게 학생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정책과 교수학습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고교학점제는 대입제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너무나 많은 수능 교과목은 고교학점제에서 다양한 과목 개설과 학생들의 수강 동기를 확보하는데 방해가 된다(Sung, 2019).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수능교과목에서 기술·가정 교과는 제외되어 있으며, 다양한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분야는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아 학생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수능과목을 대거 축소하는 정책을 실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기술·가정’ 교과(군)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위계에 맞게 ‘탐구’군으로 이동하고, 선택과목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수능과목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이 기술·가정 교과목을 선택하였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실제로 2022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MOE, 2018a)에 따르면 수능과목은 국어(공통, 선택·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수학(공통, 선택·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영어(영어I, 영어II), 한국어, 사회 탐구 9과목, 과학 탐구 8과목, 직업 탐구 6과목,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으로 2020학년도 이전에 비해 직업탐구 영역을 제외하면 오히려 확대되었다. ‘생활교양’군의 제2외국어와 한문 교과까지 수능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술·가정 교과목을 수능과목에 포함시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넷째, 예상했던 것과 같이 중학교 재직 교사에 비해 고등학교

교에 재직하는 기술·가정과 교사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고, 고교학점제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교과 인식 개선 홍보’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5$). 이에 따라 기술과와 가정과 교육 공동체에서는 협력적으로 교과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고등학교에서 선택 가능성이 높은 선택과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등 기술·가정과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중등 교원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모두 재직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고등학교 재직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된 것과는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고등학교 교사로 한정하여 질적 연구를 하거나, 고등학교 근무 경력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전국의 중등학교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과 편성 및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차기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는 실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문제는 기술·가정과 교사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정해진 학교교육과정 시수에 서 기술·가정과 수업 시수를 확대하는 문제는 학생을 비롯하여 동료 교원, 학교 관리자, 학부모 등의 교육과정 관련자들의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동료 교원, 학교 관리자,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의 기술·가정과에 대한 인식과 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구조화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거시적으로는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을 재구조화하는 연구로부터 미시적으로는 기술·가정과 의 새로운 선택과목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선택과목 지도를 위하여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교육과정 개발 과 현직 교사를 위한 역량 강화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Choi, J. H. (2019). Teachers' perceptions on the integration of literature and science and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1), 421-447.
- Gu, J. E., & Namgung, J. Y. (2011). *Primary research for the introduction of credit-based curriculum system*. Seoul: KEDI.
- Han, H. C. (2012). A study on the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subject-specialized high school.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0(1), 99-124.
- Hong, H. J. (2018). Understanding and practical desig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 699-724.
- Kim, J. S., Lee, K. W., Cho, B. K., Lee, M. H., & Lim, Y. N. (2018). *A study on restructuring high school curriculum to adopt the credit system*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RC 2018-8). Jincheon, Chungbuk: KICE.
- Kim, M. H. (2010). A study on the school curriculum 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0(3), 47-72.
-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2017, November 27).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안)'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Position of KFTA on the Ministry of Education's 'implementation direc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operation plan of research schools']*. Retrieved from http://www.jnfta.or.kr/board/board?per_page=18&mode=read&write_id=532
- Kwon, S. H., & Kim, D. K. (2012). The legal characters of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school curricul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3), 1-21.
- Lee, K. W. (2018). Teacher's perceptions and needs on implement

-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2), 543-567. doi:10.22251/jlcci.2018.18.12.54
- Lee, K. W., Kim, J. S., Lee, K. H., Han, H. C., Kim, K. J., & Hyung, I. Y. (2017).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고교 교육과정 방향 탐색 연구 학습자 중심 고교학점제 실행 방향 및 과제 [A study on the direction of high school curriculum for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Direction and tasks of student-centered high school credit system]*.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CRC 2017-9), Jincheon, Chungbuk: KICE.
- Lee, M. S. (2014). The perceptions of educational specialists about the competencies of teachers and principals for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school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2(4), 195-215.
- Lim, Y.-J. (2018). Case study of organization and operation expansion in general high school technology course.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ion*, 43(2), 97-113.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 *A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Notification No. 2007-79 of Ministry of Education and Home Resources Development.
- Ministry of Education. (2017).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Direc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operation plan of research schools]*. Retrieved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2593&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20402&opType=N>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A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Notification No. 2011-361 of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Ministry of Education. (1997). *A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Notification No. 1997-15 of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15). *A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nformation curriculum*. Notification No. 2015-74 of Ministry of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2018a). *2022 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2022 School admission system reorganization plan and high school education innovation direction]*. Retrieved from <https://www.moe.go.kr/sn3hcv/doc.html?fn=12f1f89d29c4e0b66999378c2c37dab2&rs=/upload/synap/202003/>
- Ministry of Education. (2018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Introduction to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Notification No. 2018-162 of Ministry of Education.
-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2019). Retrieved from <http://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2018). *초·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ct No. 15961)*. Retrieved from www.law.go.kr/lsInfoP.do?lsiSeq=205799&efYd=20190619#123:0
- Park, M. J. (2017). Exploration on the organization of high school home economics selective curriculum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5), 539-553. doi:10.6115/fer.2017.039
- Shin, J. A. (2019). *A study on the analysis of high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Shin, Y., & Kwak, Y. (2019). Analysis of realities of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science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43(1), 64-78.
- Sung, Y. K. (2019).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 제언 [Policy suggestion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교육개발 [Education development]*, 46(2), 17-19.
- Yu, C. W. (2018). Analysis of teacher's perception and organization on physical education elective course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9(3), 591-602.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유의표집 방법으로 전국의 중등 기술·가정과 교사 345명의 설문 자료를 SPSS 24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 F검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현재 단위 학교에서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편성 시수가 부족하고(61.1%), 교사의 수도 부족(53%)하다고 인식하고,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었으며(62.0%), 향후 학교교육과정 편성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매우 높았다(4.47, 89.9%).

둘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었고(3.34) 긍정적인 인식(37.7%)보다 부정적인 인식(52.8%)이 많았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3.88)과 전공 분야의 전문내용 심화(3.81)를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식한 반면, 비입시 과목으로 인한 선택 감소(3.90)와 이에 따른 교사 전보의 어려움(3.57) 등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로선택과목의 조정(4.51), 선택과목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4.46), 기술과 가정의 분리(4.45),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연수 제공(4.44)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술·가정 교과가 차기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학점제에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와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 편제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논문접수일자: 2020년 1월 28일, 논문심사일자: 2020년 2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3월 11일